

감사보고서

회계감사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이 사 회 규 정

2022년 3월 10일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법인사무처,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상리자연어린이집, 다솜장애인주간보호,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 하누리주간보호, 다솜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이티장애인공동생활가정,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최종병기공동생활가정, 연말카드사업 · 행복플러스가게 2곳, 서은단기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 상리노인복지센터, 상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상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영도구푸드마켓 및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이하 “한국재활재단”이라 함)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에 수행한 사업의 수입과 지출 및 재산관리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고 동 회계연도의 수지계산서 및 자산 · 부채 내역(이하 “재무제표”라 함)을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재활재단의 정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에 근거하였으며,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의 수정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제표가 (복지)한국재활재단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수지내역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 사 · 공 인 회 계 사

김 호



감 사 · 공 인 회 계 사

장 대



수정 및 권고사항

1.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내부통제 미비점 보완 필요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지급은 지급정보작성업무와 지급승인업무가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금통제는 여타의 통제에 비해 적발통제 보다는 예방통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최소 2단계이상의 통제활동이 필요하며, 시스템 구조상 1인에 의한 자금이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업무분장 등이 불가능할 경우 상위 기관에서 주기적(예, 월1회)으로 잔액확인을 통해 내부통제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철저이행 필요

1)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유념할 것은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신고 누락되기 쉬운 부분이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이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방법(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매월의 정규직 인원과 총급여액은 [A01 간이세액]에 매월의 일용직 인원과 총급여액은 [A03 일용근로]에 기재합니다.

나. 정규직 퇴직자가 발생한 월에는 [A01 간이세액]과 [A02 중도퇴사]에 기재하되 [A01 간이세액]에는 퇴직자를 포함한 당월의 인원과 총급여액을 기재하고, [A02 중도퇴사]에는 당월 퇴직자 인원과 당해연도 1월부터 퇴직월까지의 당월 퇴직자의 총급여액을 기재합니다.

다. [퇴직소득]에는 퇴직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월에 퇴직인원과 퇴직급여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신고대상인 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은 본봉, 각종수당(근로수당, 가족수당, 물가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등), 공로금, 학자금,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휴가비 기타 유사한 급여 및 기타 여러 가지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월차수당,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범위가 상당히 넓으므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감사

코로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 를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상리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실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대비 10% 상향 달성하였고, 코로나상황에 잘 대처하여, 카카오채널 활용, 스마트폰 활용 교육, 동삼주공단지내에 공공와이파이존 운영하였음. 영도구청 기획감사과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시 계약 절차 부적정, 기능보강에서 계약 절차 부적정 및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물 내 공공요금 부과기준 불명확 등 지적을 받아 시정보완 완료했습니다.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매출이 14% 향상되었고, 고충처리위원회의 규정을 잘 지켜 직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으나, 영도지역의 자활근로 대상자들의 노령화와 근로 능력의 저하로 참여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추가 운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상리자연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오전 7:30 – 오후 7:30까지 영유아 63명/ 교직원 12명이 함께 하며, 코로나 상황에 잘 대처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가 잘 성장하도록 심혈을 기울인 결과, 보건복지부 열린어린이집 연속 선정, 서영도구 급식지원센터의 우수급식시설상, 시설장 구청장 표창으로 우리 법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는 어르신,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이 다양하고 프로그램 종류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90% 수준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알코올 및 신체질환자의 고난도 사례에도 신속하게 개입하고, 서비스 종결 대상자의 긍정적인 목표 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분기별(4분기) 자체 사업평가에 충실히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고, 직원 평가는 강점중심기술 평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자만족도 평가 결과 지역주민의 우울정도는 전년도보다 더 높아져 향후 우울 감소 프로그램 을 더 심도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기기 사용 학습 욕구가 높고, 직원들의 접수 과정 등에서의 응대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음. 광명시 복지정책과 지도점검에서 차량 유류수불대장의 정비를 요구받았고, 노인복지과에서 공익활동 협약서 작성 지연과 서비스의 이용신청서 담당자 의견이 누락되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든 사업이 계획 대비 실적이 100%를 넘기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성인 지체장애인 대부분 이용하는 셀프운동실과 찾아가는 모바일카페만 계획 대비 40% 실적입니다. 서비스의 주 대상이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지만 장애인 개인에 대한 서비스 외에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이웃사촌입니다” 사업은 고립가구 615명을 찾아 41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발굴단 28명과 전문가 3명이 1년간 활동하고, 발달장애인 17명과 지역주민의 자연적 관계망 구축 사업, 도예하는 장애인과 도예 전공 대학생이 함께하는 작품활동 등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년간 5 종류의 사례연구물을 100부 정도씩 배부하였으나 복지관의 타 부서 직원의 피드백이나 배부받은 타 기관의 평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로 ABA동행치료 워크북의 경우, 치료대상은 복지관 이용자이지만, 치료전문가는 ABA행동치료센터이며, 무단 복제는 금한다고 하였으나 복지관 직원들이 이 기법을 제대로 익혀 활용하고 1회용으로 끝내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이용자와 직원의 만족도는 90% 이상인 것에 비해 직원 이직률이 높은 원인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주간보호·단기보호·그룹홈은 코로나 방역과 감염 시 대처하느라 이용 일자와 이용 인원이 계획 대비 80~90% 였습니다. 서울시 시설평가에서 다솜주간보호는 11개 분야 중에 8개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외부 프로그램사업에도 선정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모든 기관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정성적 평가로는 100%에 달성되었습니다. 경미하지만 지자체 감사에서 행정상 몇 가지 지적받은 건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기를 권고하며, 각 사업의 효과/효율,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기를 권고합니다.

조덕자 부산지부장

이청자 상임이사